

자원의 가치를 환원하기에... “사회적 환경적 책임감이 강한 기업”

대체산림자원 확보하기위해 호주 이주 결정



강정민 회장은 목재업을 경영하던 선친의 기업을 도와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산림개발 및 수출입 업무를 봤으며 호주 테즈메이니아에서 3개의 목재 가공공장을 세워 경영하고 있다. 목재업만 한 우물을 파서 49년의 경력을 가진 베헤랑이다.

그의 선친은 1930년대 말에 동건무역을 설립한 강정필(康正植, 1919~2002) 회장으로, 해방 후 미 군정 하에서 미카오를 통한 무역 체널을 개척했으며 1946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의 창립멤버로 참여했다.

해외업에 뛰어든 강장필 회장은 정부의 대일무역중단 결정으로 산박을 통나무로 투입했으나, 선박 대리점의 능기으로 말레이시아 페낭의 법원에 입류되면서 고비를 맞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56년에 생소했던 말레이시아로 가서 10년간 법정 투쟁한 결과, 승소했다.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산림개발사업에 진출했다.

인도네시아 등부 카미란틴주 시마란다시에 세운 피티 히마 (P.T. Hima)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직업장 근처에 미을 현지인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웠다. 이는 낯선 말레이시아에서 자신에게 영어를 가르쳐줘서 재배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나눔의 실천이었다. 강장필 회장은 자카르타와 싱가포르에 한인학교 이사장을 맡아서 교사 신축을 주도했던 국립로 국민훈장 동백장(1976)과 모란장(1993)을 각각 수훈했다.

강정민 회장은 1971년부터 시마란다시에서 선친의 원목개발사업에 함께하여 일하였다. 80년대에 등남이 산림자원 고갈이 현실화되면서 대체 자원 공급원 확보를 위해 조사하고 있던 중, 산림자원이 풍부한 테즈메이니아 주정부에서 산림 개발의 제안을 받았다. 1984년 1월 호주 테즈메이니아로 이주해 유칼립투스 수종의 베니아 생산 사업 터닝상 조사에 착수했다.



낮은 등급의 원자재를 활용, 고급 합판 생산기술개발에 성공

강 회장은 고급 원목들이 현지 목재 회사들에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업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낮은 등급의 원자재 유칼립투스 원목을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역할을 끊었다. 그는 테즈메이니아에서 오래된 큰 나무를 벌채 후 그곳에서 지난한 나무들이거나 또는 새로 삼림 자원 확보를 위해 조성한 플랜테이션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활용, 고부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는 테즈메이니아 산림청과 협력하여 1992년 9월 호주 연방정부로부터 최초로 기술 실험을 위한 유칼립투스 원목 수출허가를 받았고, 이듬해 5월에 한국으로 수출했다. 그러나 제품에서 심각한 결함이나 수족이 발생되면서 한국시장 개척에 실패했다. 그렇지만 낙담하지 않고 1997년부터 호주 연방정부와 테즈메이니아 주정부간의 지역산림협약을 체결, 지속적으로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IMF IMF의 발행으로 5년간 프로젝트 추진이 중단되면서 국심한 자금난을 겪었으나, 이에 적절하지 않고 2002년부터 일본과 중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러시아 등과 해당 분야의 기술 정보 협력을 통해 호주 국립연구기관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 CSIRO) 에서 낮은 등급의 원자재를 고급화하는 실험을 기획했다. 그 결과, 제품의 결함이나 뒤틀림, 일정하지 않는 수족과 두께의 편차를 극복할 기술과 이에 적합한 투톱과 철근을 결합하는 철근 결합 기술을 개발했다. 술한 실험 과정에 2~3mm 길이의 목재를 토터리 절삭 기술을 통해 얇은 두께의 베니어를 만들어 건조 공정을 거친 뒤 기로와 세로를 여러 겹을 겹쳐 매우 단단한 고강도의 합판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그는 호주 회사들이 복제제조를 통해 원목을 선별, 활용하여 고강도 합판 생산에 착안, 테즈메이니아에서 목재 생산 라이센스를 확보했다.



연방고용부장관 주정부장관 노조입원 지역대표 티안 지지집회

환경보호주의자의 극렬한 반대 극복, 호주정부 인정받아



테즈메이니아 수출상 호주과학기술부장관과 함께 티니버트 전 호주총리 도니버크 연방 환경부 장관

강 회장은 2005년 테즈메이니아 산림청과 20년에, 올선 20년의 원목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기술과 원자재는 확보됐으나 투자금이 없었다. 그는 오래전에 말레이시아 목재 회사들과 거래했던 경험을 통해 2005년 5월 최종적으로 말레이시아 사라와크 소재 상장 기업인 타인 홀딩스를 파트너로 찾았다. 해외자본 1억달러를 유치해 3개 공장을 건설했다. 2007년 호바트 근처에 4,000만 달러를 투자해 휴온 베니아 공장을 설립했다. 2008년에는 4천만달러를 투자하여 스미스톤에 베니아 공장을 세웠다. 2015년에 스미스톤에 1700만달러를 투자해 합판공장을 건설했다. 이처럼 기술개발과 해외자본을 유통, 공장을 건설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 수출과 호주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데 꾸준히 30여 년이 걸렸다.

강정민 회장이 낮선 테즈메이니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곧이입이 ‘현지 사회와 함께 성과를 나누자’는 경영철학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매년 이 지역 학생들에게 학적금 지원은 물론 스포츠팀 육성과 운동장, 컴퓨터 기증 등은 물론, 산림축제 등 지역나라의 행사에 자숙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특히 주류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들 지지자들과 일간 악보이나 학회지와 같은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지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과 호주간의 경제 및 문교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앞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목재산업이라면 산림 파괴로 인식하여 무조건 반대를 하던 오스트레일리아 녹색당과 환경보존단체의 적렬한 반대에 글머리를 잃은 적이 있다. 환경단체들은 공장 또는 제품 선착하는 선박을 막아 불법 첨개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날조된 선전으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재제) 방법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며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2012년 1월에는 환경단체가 사무실과 공장을 무단 점거한 바람에 조업 차질은 물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그는 이에마다 성심 성의껏 이를 환경단체의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협력하겠다. 그가 경영하는 회사는 브리즈번용이나 일류용으로 밖에 쓸 수 있는 나무를 사용하여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을 활용하는 장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지역사회의 고용인원이 5백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도 내세웠다. 덧붙여 회사는 목재 가공의 전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이고 도덕적 기준을 준수하여 지속 가능한 원목으로, 기관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국제 신뢰인증프로그램인 PEFC의 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타인 테즈메이니아는 사회적, 환경적으로 책임감이 강한 기업임을 환경단체 또는 녹색당까지도 점진적으로 인정해왔다. 강 회장은 2008년 테즈메이니아 수출상과 호주 연방정부 수출상을 각각 수상했다.



2005년 5월

티안 테즈메이니아 설립
(타인 홀딩스와 합작법인)

2006년 1월

테즈메이니아 산림청과 20년+옵션
20년 원목공급 계약 체결

2007년

테즈메이니아
휴온 베니어 공장 준공

2008년

티
풀리
브랜

테즈메이니아 합판공장 준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강정민 회장

타안 테즈메이니아 (호주)

출생년월일	1945년 7월 23일
출생지	서울특별시
학력	동국대학교 경제학, 인도네시아 물리와르만대학 사회정치학
회사명	타안 테즈메이니아 대표(호주)
이주년도	1984년 1월
직원	500명(인력파견원 370명 포함)
매출액	3천4백만 호주달러(2019년)

주요 경력
1971~1980 피티 히마 (동부 칼리만탄 인도네시아) 이사
1980~1984 강신흥 (주) (싱가포르) 사장
1984~현재 호주 인터내셔널호주, 테즈메이니아) 대표
2005년 5월 타안 테즈메이니아 설립(타인 홀딩스와 합작법인)

사회 공헌

- 휴온빌과 스미스톤 초등학교에 매년 2000달러 장학금 지급.
- 호바트 소네이 (농림축산 축제)에 매년 3000달러 지원
- 휴온빌과 스미스톤 중고등학교에 스포츠 팀 육성 및 유니폼제공과 삼기 지역 초등학교 컴퓨터 교실 설치와 교육보조자 지원
- 1984~2005년까지 로터리 클럽 회원으로 호주 심장 재단 위해 매년 20000달러 기금 조성 참여.

후 포상

- 2008년 타즈메이니아 주 수출상
2008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 수출상
2017년 타즈메이니아 디자인 어워드 상

